

이스라엘-헤즈볼라, 13개월만에 포성 멈췄다

60일 교전 중단 등 휴전안 전격 합의...합의이행 감독 위원회 설립키로 이 '레바논에서 행동의 자유' 요구 관철...우발시 휴전파기 빌미될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전격 휴전안을 60일간의 교전 중단과 함께 양측이 모두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측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한 '레바논에서 행동의 자유' 보장 요구가 사실상 수용됐다.

와이넷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휴전 합의문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지 시간 27일 오전 4시부터 발효된다.

우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상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합의문은 "헤즈볼라와 레바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만 주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 결의를 토대로 양측의 휴전을 중재해왔다.

휴전 합의문은 레바논이 "레바논 남부를 정의하는 선에 따라 공식 보안군과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공식 레바논 보안군과 군대만이 레바논 남부

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군대를 운영하는 유일한 무장 조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60일 안에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양측 경계선) 남쪽으로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치열하게 충돌한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가 물러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아울러 합의문은 '자위권'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번 약속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문구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의 행동의 자유'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위권 행사를 위한 레바논 내 군사 작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스라엘은 이 권리를 휴전 협상 과정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 사안은 이날 휴전안 최종 합의 직전까지도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영상 연설에서 "미국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 행동의 자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 측에 송부한 별도 서한을 통해 헤즈볼라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와이넷에 따르면 미국은 이 서한에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레바논 영토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약속 위반에 대해 언제든지 조치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적시했다.

'행동의 자유'가 향후 60일간의 휴전을 위태롭게 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된 가운데 베이루트 남부 교외 입구의 손상된 건물 근처에서 레바논 남성들이 헤즈볼라 깃발과 고(故) 헤즈볼라 지도자 사이드 하산 나스랄라가 그려진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에는 휴전 이행을 감독할 장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은 "양측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약속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와 UNIFIL에 이를 보고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 레바논과 관련한 무기는 레바논 정부가 감시하고, 승인되지 않은 무기 생산시설과 자재 등을 모두 제거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보유한 무기는 압수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전 합의가 전격 타결됐지만 약속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빌미를 제공하면 즉

각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협의를 위반하고 스스로 무장하려 하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며 "국경 근처의 테러 기반 시설을 재건하려고 하면 우리 공격하겠다. (헤즈볼라가) 로켓을 발사하면, 터널을 파면, 로켓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시 휴전 후 교전을 재개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타결한 뒤 1주일도 안 돼 양측의 유혈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국제사회 "환영"

가자 휴전도 촉구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휴전안 타결이 가자지구 휴전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양국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파괴, 폭력을 이번 합의가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각자가 모든 합의 상황을 완전히 존중하고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레바논은 내부적 안정과 안보를 키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이너 헤니스-플라스하르트 레바논 주재 유엔 특별조정관도 "양측의 변함없고 완전한 헌신보다 필요한 것은 없다"면서 합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양의 작업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휴전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또 다른 폭력의 순환을 막는 데 이스라엘-레바논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국은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등과 함께 가자지구에서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상태로의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작곡가 김형석, 英 옥스퍼드대 강단 선다

세계적 예술인 선정...AI와 K팝 융합·한글 세계화 연구 예정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사진)이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돼 방문 학자 자격으로 창작과 연구 활동에 나서게 됐다.

27일 조지은(영국명 지은 케이) 옥스퍼드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김 프로듀서는 올해 옥스퍼드대가 신설한 '인문대-켈로그 칼리지 방문 프로그램' 하에 선정된 세계 예술인 6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K-팝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혁신적인 예술가'로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예술인을 초청해 교내 유수의 학자들과 창작과 연구를 함께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하반기에 10명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방문 기간 옥스퍼드대 여러

칼리지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콘퍼런스에도 참여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나설 수 있다.

김 프로듀서는 인공지능(AI)과 K-팝에 관련된 특강과 연구에 나서게 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김 프로듀서는 다음달 4일 옥스퍼드대 올프스칼리지에서 강연하며 자신이 작곡한 K-팝 곡들을 교직원 앞에서 직접 연주하기로 했다. 또한 조지은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한글 세계화 관련 창작과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AI와 한류의 융합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옥스퍼드대가 인문학 연구시설과 대형 공연장을 아울러 내년 개관하는 '슈와르츠만 인문예술관'에서 K-팝 및 한류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학문 연구



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옥스퍼드와 한국을 연결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조지은 교수 연구팀은 지속가능한 K-컬처 발전을 위한 옥스퍼드 한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김 프로듀서는 옥스퍼드대의 졸업식이 열리는 셀도니언홀에서 아시아 대중문화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연 및 특강을 펼쳤으며, 그가 창작한 1400여 곡을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프로듀서는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K-POP 전체가 인정받은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한류'를 연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글 지도' 보고 갔는데...추락사 '날벼락'

'공사 중' 끊긴 다리로 안내...인도서 차량 추락 3명 사망

인도에서 구글 지도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 가던 차량이 공사 중인 다리로 진입해 15m 아래로 추락,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발릴리 지역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차량 1대가 공사 중인 다리에서 람강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이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가 구글 지도 안내에 따라 공사 중인 다리로 진입했고,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 약 15m 아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다리는 지난해 대규모 홍수로 일부가 끊겨 복구 공사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다리 입구에 공사 중임을 안내하는 적절한 안내판이나 진입을 막는 차단막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공사 관계자들과 구글 지도 관계자 1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글 측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